

간 호 학 의 방 향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장 이 귀 향

간호학의 방향을 本人이 단독적으로 제시 한다기 보다는, 오늘날 만큼 간호학이 발달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시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 정작 앞으로의 우리의 걸걸을 여러분이나 제자신이 두고두고 연구하고 같이 판단할 것으로 남겨두고 오늘 저의 말씀을 끝맺을까 합니다.

아마 간호란 행위나 말은, 비록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천지 창조이래 인간의 존속과 함께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능적으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남편이 아프면 성한 아내가 병상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번창하고 과학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생활양식이 복잡하게 되고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요소가 파생됨에 따라 옛날식 대로의 의료에 무퇴한인 범인(凡人)에 의한 간호는 만족할 수 없게 되어 특별히 교육받고 기술이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간호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史的 사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선진국에서의 간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나 학문자체가 동양 특히 우리 나라 같은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구미각국은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봉사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까닭에 간호사업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한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것처럼, 역사를 훑어보면 양반 상놈이나 갖갖고 유교사상의 방향, 남존여비 사상으로 그야말로 service업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으며, 특히 여성이 종사하는 간호사업은 발전할 여지 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 서구의 발달된 과학문명이 급속히 들어 오므로써 간호학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6·25전쟁으로, 간호학이나 그 업무는 담보상대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구급간호에 한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UN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전쟁복구를 한 후, 정부의 강력한 보건시책과 뒷받침으로 많은 간호원이 海外로 진출하여 발달된 선진국의 간호를 수련받고 돌아와 한국의 침체했던 간호를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전문 간호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심각한 몇 가지를 들어 보자면,

첫째, 국가적 견지로서는, 간호원의 수급문제를 우선 급선무로 들고 나오겠지만, 우리들 입장으로는 너무 수급대책에 급급하다보니 즉 간호학교의 신설, 학생증원, 보조원훈련 등...의 量的 해결만을 모색하나 과연 유자격 교수진의 학교나 실습 시설의 확충 등이 선결되고 있는가?

이러한 난경 속에서 배출된 간호원의 質은 누가 보장할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하는 시대변천에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간호학을 하는 사람은 항상 민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여 변화하는 시대요구에 만족한 간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계속)

실은 의학교육이나 간호교육에 어떤 차질을 의미함으로 의료요원간에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의학교육 과정에 적어도 가장 가깝게 같이 일하는 간호원의 역할을 소개해주고 간호원에 대한 전문적가치관을 선행하기 위하여 현대간호 개념을 소개시킬 수 있는것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지난 5月末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되었던 사회의학 세미나에서도 채택된 건의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다시는 실행행사로 이끌게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료원 당국은 의료원內에서 해결할 수 있는 치우개선에 관련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의사나 간호원 사이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와 간호에 임하는 모든 의료요원들은 상호 존경, 신뢰를 갖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사당국에서는 한 기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일방적인행정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사조치는 물론 교육과 자격에 합당한 인사 이동에 고려있길 바란다. 일생을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경륜과 연구실적이 있는 분을 일조일석에 보건간호 전문가의 자리에 전보발령을 냈다는 것은 행정능률의 저하는 물론 입장에서 볼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간호협회는 이반을 계기로 회원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 운영을 연구하여야 하며 명실공히 전문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적극적이고 직각적 반응으로서 사회 여론, 행정부의 처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명예직 회장직을 전담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31페이지 계속)

과거의 병상옆에만 국한되었던 소극적인 간호개념에서 탈피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 속에 파고 들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장수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병원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전문간호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간호교육도 변화된 간호개념에 적합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수정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간호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자격 간호원을 기르려면 적어도 成年이어야 이런 기능을 완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여 적어도 12년의 일반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라야 간호교육을 3~4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보건의료원 즉 Team member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Co-worker로서 국민보건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욕구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보면 간호원의 봉사적인 정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의 간호원이 응분의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곧장 환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자는 한사람이 늘고 간호원은 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정확한 계산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료한 현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이 뒤 따라야할 것입니다.

(16페이지 계속)

우리들의 지성이 시대에 앞서고, 우리들의 사명과 거룩한 Nighthingale의 공적이 송고하게 표창되어야 한다는 大義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원대한 포부를 마음 담아 작은 소녀가 白衣에 뛰어난 송고한 그 理想의 指標를 定立하자는 호소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파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조용히 “까운”을 다시 입고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에 어려운 것이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하얀 우리들 마음의 까운 속에 깊이 담아 두면서 떨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위로를 보내 주신 우리들 白衣의 Human에게 알찬 내일의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